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투스 평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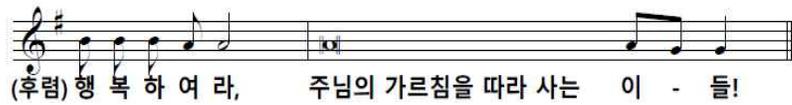
사목회장 :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집회 15,15-20

화답송



○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
○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1코린 2,6-1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음

마태 5,20-22ㄴ.27-28.33-34ㄴ.37

성가

입당성가 468 예물준비 213
성체성가 180 파견성가 82

미사 봉헌

연미사

신동환 아우구스티노 첫기일
이정진 안토니오
이정진 안토니오
이경용
김형식
김종욱 베네딕도
나유순
홍송
강무강

봉헌

신동은 엘리사벳
한동훈
이미진 조앤그레이스
한한숙
이수산나
박지은 카타리나
김영희 클라라
강안드레아
강안드레아

생미사

정영시 스테파노, 박영순 아가다 건강
윤복용 요한, 윤루시아 건강
성장 세미나에 참가한 분들
이로잔 캐더린, 이흥규 요한
최은자 세실리아
공미진 마르시아
박종성 베드로
김영재 건강
가롤로신부, 김효주 수녀 영육건강
김동권 사무엘 신부 영육건강

봉헌

정다경 마리아
성령기도회
성령기도회
이안나
정봉애 카타리나
박카타리나
박카타리나
강안드레아
강안드레아
강안드레아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1	복사2
2월 19일	김진수	김진섭	배수아	배수아	유정욱	한서희 최예준	
2월 26일	조소연	김규현	진달래	진달래	김영숙	한서희 -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매주 주일 11:00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13.2

▶성경공부(BIBLE ACADEMY) 1학기 모집

주님께로 돌아서는 은혜로운 사순시기를 시작하며, 하느님 말씀을 즐겁게 배우고 맛 들일 성경공부로 초대합니다.

개 강	시 간	과 정	담 당	신청마감
2/26(일)	매주일 오후1시	구약	김효주 수녀	2/20(월)

*성경공부 자료 준비로 미리 신청 바랍니다.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과 함께 신앙생활 안에서 성가연습과 미사 반주를 해 주실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피아노 전공자 문의: 이주윤 카타리나 646-696-4680

▶주일학교 교사모집

어린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장할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사무실

▶성지(聖枝) 회수

미사후 나가실때 성당 입구 또는 사무실에서 수거합니다.

▶재의 수요일 미사 2월 22일(수)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여 신자들의 머리에 재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날 한인 공동체는 미사가 없습니다. 맨하탄 성프란치스코 성당 또는 가까운 성당에서 미사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성프란치스코성당 2/22 미사: 7:30Am 12:00Pm 5:30Pm 6:30Pm
2/22 재 받는 시간: 7:00Am~ 6:30Pm 아래성당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매주 금, 7pm 윗 성당

날 짜	주 관 단 체	인 원
2/24(금)	꾸리아	각 단체마다 4명 필요: 십자가1 주송1 초1
3/ 3(금)	올뜨레아	
3/10(금)	요셉회, 성모회	
3/17(금)	청년회	
3/24(금)	양업회, 성령기도회	
3/31(금)	연령회	
4/ 7(금)	전례 말씀봉사자회	

▶성경을 읽기 전, 후 드리는 기도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공지사항
- 기부
- 주보



하루에 세사람은 웃게 만드십시오.
 그 안에 당신의 천국도 있습니다.

김이주인
 그림 제공함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진자세실리아 이병국요한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단체 모임

구세주의모후 Pr.	매주 주일 08:00	Rm(2F)
우리즐거움의원천 Pr.(청년)	매주 주일 11:00	2D
하늘처럼성가대	매주 주일 08:30	3B
예비신자교리반	매주 주일 11:00	3A
청년회	일 첫째 주일 12:30	2A
청년찬양팀(아훼이레)	1,2째 토 15:00	3B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 17:30	Rm(2F)
신명풍물패	2~5 주일 14:00	3A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1B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1B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아래성당
요셉회	셋째 주일 11:00	1B
꾸리아	셋째 주일 12:00	Rm(2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2E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2A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	-

사순시기의 시작, 재의 수요일

2019년 3월 6일 저녁, 미국 CNN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 크리스 쿠오모의 모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마에 검댕이 묻은 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출연자 몇몇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 이유는 출연진의 부주의가 아니라 당일이 재의 수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2월 22일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작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복받은 성지를 태워 이날 재를 머리에 얹거나 이마에 바르기 때문입니다. 사제는 재를 축복하고 그 재를 머리에 얹어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 또는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창세 3,19 참조). 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영원한 삶을 구하라는 장엄한 외침입니다.

재의 수요일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는 3세기 초까지 사순시기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주님 부활 대축일 전 2-3일간 예수님의 수난을 특별히 기억했습니다. 40일의 기간이 정해진 건 니케아 공의회(325) 이후입니다. 그리고 성 그레고리오 1세 교황(재위 590-604) 때 사순시기의 첫날로 재의 수요일이 정해졌고, 성 바오로 6세 교황(재위 1963-1978)은 이날 단식과 금육을 지킬 것을 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식을 만 21세부터 60세까지의 신자들이 한 끼를 먹지 않고 한 끼는 적게 먹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단, 병을 앓고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입니다. 또한 금육은 만 14세 이상 모든 신자가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순시기 중 전례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사제의 제의가 자색(보라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대축일을 제외하고 대영광송을 생략합니다. 또한 복음 환호송으로 알렐루야 대신 다음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이런 변화는 사순시기가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는 때이기에, 통회와 보속과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의 일상에서도 절제와 극기를 실천하고 그 몫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